

손학규 '뚝심'



박지원 '결단'



박주선 '중재'



최인기 '압박'



# 내홍에 갇힌 민주 구해냈다

## 범야권 단일대오 형성 총선·대선 승리 교두보 마련

민주당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야권 통합의 '단일 대오'를 형성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손학규 대표의 '뚝심'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결단', 박주선 최고위원의 '중재', 최인기 의원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우선 손학규 대표는 심각한 내부 갈등 속에서 '통합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민주당과 범야권 진영이 한 자리에 모여 통합 정당을 결성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큰 그림을 완성시킴으로써 국민적 감동과 흥행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물론 원상이 아닌 단계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당초 계획에는 못 미쳤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한 통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고 당내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최인기 의원은 정치력을 보이면서 내년 대선 도전에 상당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 개최시 당권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야권 통합'의 시대적 명분을 우선하는 '결단'을 내렸다.

박 전 원내대표가 눈 앞의 '당권'이라는 정치적 기득권을 비우고 야권 통합의 중재안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수위라도 하겠다'는 초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고 있다. 실제로 통합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될 경우, 박 전 원내대표의 당권 확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통합 방식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해지면서 분열의 위기가 고조된 것도 박 전 원내대표가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야권 통합의 '단일 대오' 형성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박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른 통합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의결한 뒤,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는 단계적 통합론을 제시해왔다.

실제로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단계적 야권 통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적극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기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원 샷' 통합 전당대회 세력화 선(先) 민주당 전당대회 세력을 각각 압박, 절충안 합의 도출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최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취합, 통합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실으면서도 당헌·당규에 의한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며 당내 세력 간의 합의를 유도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뜻을 담은 최 의원의 행보는 통합 논의의 국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권 통합의 단일 대오를 형성함에 따라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통합 실무협상에서도 이 같은 배려와 소통이 이뤄져 국민적 감동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광주 시민사회세력 동참해달라"

### 민노·국참·새진보통합연대 기자회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광주 새진보통합연대가 참여하는 광주지역 통합진보정당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노당 광주시장 윤민호 위원장과 국민참여당 광주시장 임택 위원장, 광주 새진보통합연대 윤난실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통합진보정당은 3자 간의 단순 합당이 아니라 진보정치가 시민 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광주 시민사회세력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정치가 민중의 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로 통합진보정당이 탄생하게 됐다"며 "통합진보정당 논의에는 3자뿐 아니라 다양한 대중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과 사회에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진보통합연대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24일과 27일 임시 당 대회를 열어 통합진보정당 창당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가운데 다음달 4일 국민참여당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 독자전대 소집 요구서 제출

민주당 전국 원외지역위원장들이 2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대의원 5478명의 서명을 받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독자전대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지도부 선출 안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전국 원외지역위원장들이 2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대의원 5478명의 서명을 받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독자전대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도부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지도부 선출 안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한나라 고강도 쇄신정책 국면전환 시동

## 민생예산 증액·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검토 ... 'MB정책'과 차별화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단독 강행 처리를 뒤로하고 각종 고강도 쇄신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기초와 배치되는 것이 적지 않아 'MB(이명박 대통령) 정책'과의 차별화에 본격 나선 것이 나타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조기에 한미 FTA 후폭풍을 극복하고 내년 총·대선을 겨냥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책 변화를 역대 정권 때마다 정권 말기에 터져 나온 '대통령 탈당' 카드 대신 정책 차별화를 통해 위기국면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해 당이 강력하게 추진중인 민생예산 증액과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실 문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복지와 일자리 등 3조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민생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출예산 자체를 1조원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문제 역시 사실상 '버릿세'(부유세)를 염두로 둔, 한나라당으로서의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파격'에 가까운 정책이다. 당 일각에서조차 포퓰리즘 정책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쇄신파인 정두언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찬성

하고 있다. 유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예 이를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명 가량을 무기 계약직,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도 릴레이 쇄신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이밖에 구상찬·김성식·정태근 의원 등은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대전환과 함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이재오 정치성찰' 출간 기념 사인회

### 총장서림 400여명 몰려

특인장관을 지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총장서림에서 저서인 '이재오의 정치성찰'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열었다. 이날 사인회에는 팬클럽 '재오사랑' 회원 등 지지자, 한나라당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책을 구입한 시민에게 일일이 사인해주고 약속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약 1200권을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서울과 강원, 대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광주 동구 금남로 총장서림에서 자신의 저서 '이재오의 정치성찰' 출간 기념 사인회를 열고 있다.

구, 부산, 대전 등에서도 출간 기념회 사인회를 가졌으며, 오는 30일 인천을 끝으로 2주간의 전국 순회 출판기념회 사인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이 책에서 '공공체 자유민주주의'와 '동북아 평화번영공공체'를 정치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윤여준 "안철수, 정치하려면 총선 나가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8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통령을 하든, 뭘 하든 정치를 할 생각이면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게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안 원장의 멘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 전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안 원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의견이 통합되는 지

꾸어봐야 한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곧바로 대선에 나오는 게 신비로운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그렇게 해서 안된다"라며 "충분한 검증은 거쳐 국민에게 '저 사람이 우리 미래를 짊어질 만하다'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

다.

"안철수 돌풍"에 대해 그는 "기성 정당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혐오에 안철수라는 사람의 개인적 흡입력이 결합하면서 인기가 치솟은 것"이라며 "그런 요인이 사라지지 않은 한 거품일 수 없고 인기는 더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안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는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사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시공 사진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